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서 생태, 문화, 인간환경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화를 고려하여 생태문화도시를 정의하고 구성요소와 지표를 제시하였다. 최종지표는 융복합적 접근 방법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하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된 생태문화도시 구성요소, 중분류 지표를 생태문화도시의 정의와 인간의 삶의 질, 쾌적성 측면, 경관학적 측면, 도시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개념을 적용하였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삶을 느끼는 요인에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거주성으로 이는 기억, 전통, 의미, 상징, 관습 등이 적재된 장소성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현상학적 장소론을 적용하여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에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지표를 그 정의와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제안된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의 중요도 산정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하였으며, 사례연구로서 세부지표를 강동구에 적용하여 생태문화도시로서의 강동구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평가지표 설정을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전문가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 생태문화사회가 강조되었음에도 생태적 지표에 대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도시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2개의 축으로 나타난 생태도시와 문화도시라는 두 개념을 융복합적인 조화로 통합한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으며, 생태문화적 시각에서 도시계획 비전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HP분석 결과 생태문화도시 지표체계 대분류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조화’ 0.349, ‘도시의 문화, 환경자원’ 0.266, ‘도시환